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에 관한 연구 -Colaizzi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융합방법론 접근-

박선희*

(사)통합힐링복지협회 부회장

A Study on Relational Aggression Experience by Old Users of the Institution for Seniors - A Convergent Approach Based on Colaizzi's Methodology

Sun-Hee Park*

Vice President, Integrative Healing and Welfare Association

요약 본 연구는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과 관련하여 노인은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구조적인 기술로 발전시켜 '경험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시 기관이용노인 중 관계적 공격성 경험이 있는 노인 7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접근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구성된 의미는 32개였고, 이를 다시 16개의 주제와 5개의 범주로 나타내었다. 5개의 범주로는 '힘없는 나', '무인도에 있는 나', '내마음의 회오리', '세상속으로 보내는 나', '꺼져가는 나'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관이용노인, 관계적 공격성, Colaizzi 방법론, 경험의 본질, 의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relational aggression that old users of institutions for seniors have, understanding what that experience means. In detail, the study tried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 experience through a structural description of what and how the elderly users experience relational aggress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made profound interviews with 7 elderly persons who sustained such aggression while using the seniors' institution in Busan. In the interview, a non-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approach. As a result, the study identified 32 meanings of relational the experience which were in turn divided into 16 subjects, and 5 categories like 'I who am powerless', 'I who am in an unmanned island', 'whirlwinds in my mind', 'I who send myself into the world' and 'I who am dwindling'. Based on this result, this research made practical suggestions for preventing relational aggression as mentioned above.

Key Words : Old Users of the Senior Institution, Relational Aggression, Colaizzi's Methodology, Nature of Experience, Meaning

1. 서론

한국사회는 고령사회를 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질적 측면인 대인관계의 부정적인 양상인 관계적 공격성이 학계의 연구주제로 나타난 것이 오래된 일은 아니다. 공격성을 두가지로 Crick와 Grotpeter(1995)[1]을 구분하였다. 먼저 외현적 공격성(over aggression)은 신체적이고 언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형태이고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은 집단에서 한 사람을 고의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해를 입히는 소문을 내거나 배척, 배제 등을 사회 관계가 손상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외현적 공격성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이라면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에 초점을 두어 한 대상을 고의로 배제 시키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서 감정을 상하게 되어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말한다[2].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인 관계 손상을 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유형으로써 사회적 또는 간접적 공격성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다[3].

관계적 공격성은 노인 간의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기관이용노인이 일상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회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 간의 “관계”상의 힘들음 토로하면 노인 간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노인 간의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4]. 이러한 현상은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동년배노인을 괴롭히는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된다[5].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마을회관에서의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 안타깝게 일어났던 일이 있다.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이 일어나는 곳은 노인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며, 집단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노인 간의 관계적 공격성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문헌연구는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6], 성인으로 갈수록 외현적 공격성은 줄고[7], 성윤나, 김윤정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동생활시설이나 보호시설과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유사한 공격성향이 발견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 조직, 감옥에서와 같은 환경에서도 발생한다고 조사되었다 [1,8,9].

부정적 관계에 관한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Powers (1996)[10]는 요양원시설 여성노인이 시설 안에서 집단으로 따돌림(cast out)을 당하거나 거절을 경험한 것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연구했으며 결과적으로는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집단, 자주 보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첫째,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비롯하여 교양, 취미생활 및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로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셋째,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생활, 정보교환 등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 선행연구에 보면 정서적인 문제로 시기심이나 질투 등과 관련된다는[11]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자존감 등을 떨어지게 함으로써 타인을 공격하는 정서 및 사고를 포함하는 관계적 공격성이다[3]. 그러나 노인에게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이든 지역사회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앞선 내용의 맥락으로 본 연구는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 경험이 갖는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laizzi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융합방법 접근으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의 본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예방을 위한 실천현장에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과 관련하여 경험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융합적 기술로 발전시켜 ‘경험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여러 현상

학 연구 분석방법 중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한 융합방법 접근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개인적 속성보다 연구 참여자 전체의 경험을 광범위에서 도출해내기 때문에 개입 서비스나 이론 개발에 용이하다[12].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부산시 기관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담당 교사에게 및 사회복지사에게 추천 받아서 연구 참여자 7명이 동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본 연구방법의 특성상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계획하여 1:1의 면접을 하였다. 연구참여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보조자로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감정, 반응 등 비언어적 행동까지도 관찰하여 메모하고 작성한 현장 노트 역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50분 ~ 60분 정도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주된 질문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생활은 어떠세요?',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여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se	Age	Gender	Inmate
Kang**(Participant 1)	86	female	herself
Kim**(Participant 2)	72	female	herself and spouse
Lee**(Participant 3)	74	female	herself
Jeong**(Participant 4)	86	female	herself
Cho**(Participant 5)	94	female	herself and daughter's family
Lee**(Participant 6)	76	female	herself and spouse
Park**(Participant 7)	84	female	herself

2.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 연구 분석방법인 Colaizzi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개인의 경험적 의미를 기술한다 [13]. 특히 이 분석방법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도출된 주제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점검을 받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기관이용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에 관한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의 엄격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14]의 엄격한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적용하였다[15]. 질적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쓴 선배님과 질적 연구 논문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 분석 자료를 검토하면서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첫 인터뷰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재설명을 하고 인터뷰 내용이 녹음될 것임을 동의를 받고, 녹음 내용은 본 연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비공개되며 연구 목적 외의 다른 이유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여 이에 대해 문서로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진술한 내용은 익명으로 비밀 보장된다는 것을 알렸고 개인이 원할 때 연구 참여 중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에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와 라포 형성을 위해 식사하고 다과도 선물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인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에 관하여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을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구성된 의미는 32개였고, 이를 다시 <Table 2>와 같이 16개의 주제와 5개의 범주로 나타냈다.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의 범주화는 아래와 같다.

- 범주 1 : 힘없는 나 (열등감)

연구 참여자들은 집에 가도 혼자 계시니 그냥 시간 보내러 온다고 하시기도 한다. 같이 어울려 재미나게 보내고 싶는데 본인 스스로 마음을 열기 힘들어 하시는 느낌을 나타내었다. 기관을 이용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어야 하는데 정서적으로 힘이 들어 소극적 자세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있었다.

(사례 1) “뭘할라고 여기 와서 사람 사귀려고. 다 필요없다. 내 혼자 놀러 다니기도 바쁘다. 여기서 앉아 놀 시간 없다.”

(사례 2) “자기들끼리 시장간다고 야단이다. 시끄러워 죽겠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Relational Aggression Experienced by Old Users of the Institution for Seniors

Category	Subject	Constructed Meaning
I who am powerless (inferiority)	Low financial state	- Get withdrawn due to low financial state - Wanting to cover up poverty
	Failing to get along	- Failing to join the community - Having no one who talks to me - Feeling excluded from the community
	Spreading of rumors	- Hurting much from the spread of bad rumors about me
	Low self-confidence	- Not trying to make friends due to powerlessness - Getting introverted, just enduring but feeling angry - Being afraid of talking to others many of whom are so stubborn
	Suffering of ignorance	- Excessively caring the thoughts of friends or even others of my age due to being less educated - excessively caring the thoughts of friends that I think may ignore me.
I who am in an unmanned island (loneliness)	Feeling of emptiness	- Failing to join friends - Feeling alienated from the hang-out of friends
	Feeling of lonesomeness	- Having no friend to which I can talk - Having no friends
	Feeling of superiority	- Getting weary of others on my own
	Indifference from people around me	- Getting alienated from the community - Feeling alienated even from people around me
Whirlwinds in my mind (distress)	Feeling of resentment or frustration	- Having the feeling of resentment or frustration due to my anger towards myself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Feeling of offensiveness	- Saying in a sarcastic manner before others
I who send myself into the world (struggle)	Setting of my mind	- Resisting or reacting occasionally - Having the courage occasionally to express what I want to say to others
	Asking for help from outside	- Asking for help from social workers or program instructors
	Going head-to-head	- Trying to fight others who offend me - Having fought others due to the feeling of frustration
I who am dwindling (resignation)	Powerlessness	- Feeling little motivated to do anything and irritated from time to time
	Avoidance	- Failing to use the institution for seniors - Using the institution for seniors to have free meals, but just leaving the establishment without any exchange with others.

• 범주 2 : 무인도에 있는 나 (외로움)

연구 참여자들이 기관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시간에 다른 사람과 옆에 같이 앉아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본인 옆자리는 사람들이 잘 안 온다며 외로움을 진술하였다. 말로는 표현을 무뎠다 하게 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편안하게 되지 않으니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외로움을 나타내었다.

(사례 1)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는지 키득거리면서 사람을 기분 안 좋게 쳐다보고 그란다.”

(사례 2) “괜시리 나한테 성질내고 욕도 한다. 알곳은게 있다.”

• 범주 3 : 내 마음의 회오리 (괴로움)

연구 참여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함치면서 야단을 하니 창피하고 화도 나고 민망하고 속상함을 나타내었다. 자기를 무시당하고 놀림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표현하며, 울컥하는 마음 과 흥분된 감정을 누를 수가 없어 힘들었던 감정을 나타내었다

(사례 1)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없는 말도 지어내는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

(사례 2) “여러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내 들어라고 빈정거린다. 속상하게.”

• 범주 4 : 세상속으로 보내는 나 (애씀)

연구 참여자는 무엇인가 본인이 제의를 당한 것을 느껴 복지사에게 소극적 방법으로 알려 도움을 청하고 힘을 내어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적극적 태도로 용기를 내어 맞서는 애씀을 나타내었다.

(사례 1) “하도 내 욕을 하길래 싸우다가 힘들어 조근조근 말해도 안되네.”

(사례 2) “하도 없는 말 지어내서 소문내고 하길래 선생님에게 말려 달라고 말했다.”

• 범주 5 : 꺼져가는 나 (체념)

연구 참여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공격적이어서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이 움츠러들어 점점 작

아지는 느낌을 경험하고 기관이용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즐겁고 흥미가 없고 무기력으로 더욱 힘들어지니 사람들을 피하고 스스로 건강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좀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째 내 말을 했는지 요즘 말도 안 걸고 하니 기분도 안 좋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사례 2) “요즘 몸도 안 좋고 잘 안나온다. 가끔 나와서 밥만 먹고 갈 때도 있다. 사람이 그리워서.”

4. 결론

고령화와 더불어 독거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들이 노인여가시설을 찾아 시간을 보내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와 건강관리까지 이루어지니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 부정적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 양상인 관계적 공격성은 이미 노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5]. 이에 본 연구는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여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은 부산시 00구에서 기관이용노인으로 80세 전후로 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50분~60분으로 이용노인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식사하고 소정의 선물도 전달하면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하고 속상했던 일상의 이야기를 진술하였다. 본 연구는 Colaizzi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융합방법론 접근 방법으로 분석결과를 도출 하였다. 기관이용노인은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가지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 노인여가시설은 단순히 프로그램만 진행됨을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여가시설을 통해 노인들의 친구 관계 형성과 비슷한 지금 삶의 모습에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지지해주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류가 발견되고 힘들어함이 표현되는 노인들이 있었다. 기관이용노인들 간에 감정들이 나타나는 대인관계로 관계적 공격성이 노인들을 힘들게 하며 삶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시설거주노인은 관계적 공격성이 노인의 우울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연구 결과로도 알 수 있다[2].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부산시 기관이용노인을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융합방법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관계적 공격성은 자신, 타인 및 공동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고 여겨지며, 기관이용노인들에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관계적 공격성의 저하를 위한 실천적 개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시에 노인들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 회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서 지지와 건강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로 노인의 개별화, 맞춤형으로 심,신,영을 관리하여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되는 자세를 배양할 수 있도록 실천적 개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N.R.Crick and J.K.Grotperter,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66, pp.710-722, 1995.
- [2] D.B.Kim, J.S.Min and G.H.Jung,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on Depression of Nursing Home Residents - Focusing on Low-income Elderly,"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 Vol.43, No.1, pp.203-227, 2012.
- [3] Y.A.Seong and Y.J.Kim, "A Study on Relative Aggression Related Variabl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2 pp.513-521, 2018.
- [4] Y.P.Moo and H.Y.Lee, "A Comparative Study on Policies of Elderly Abuse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on WHO, Main Countries,"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Vol.24, No.1, pp.67-95, 2017.
- [5] Y.h.Jeong,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Family Conflict on Relational Aggression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Worker's Emotional Support," General Graduate School of Silla University, 2019.
- [6] G.Y.Che and R.O.Ba, "A Review of Research on Relational Aggression in Korea(2000-2013),"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1, No.1, pp.181-200, 2014..
- [7] H.S.Lee and O.B.Jeong,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and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16, No.1, pp.47-62, 2004.

- [8] A.M.Hansen, A.Hogh, R.Persson, B.Karlson, A.H.Garde and P.Orbaek, "Bullying at Work, Health Outcomes and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60, pp.63-72, 2006.
- [9] S.Einarsen, H.Hoel and G.Notelanelers, "Measuring Exposure to Bullying and Harassment at Work: Validity, Factors Structure and Psychometric Prosperities of the Negative Acts Questionnaire-Revised," Work and Stress, Vol.23, pp.24-44. 2001.
- [10] B.A.Powers, "Relationships among Older Women Living in a Nursing Home," Journal of Women and Aging, Vol.8, pp.179-198. 1996.
- [11] Y.G.Sing, "Steps in the Theory," Hyeonmunsa, 2001.
- [12] G.L.Sin, "Theory : Theory and Practice of Phenomenological Study in Nursing Science," Nursing Inquiry, Vol.12, No.1, pp.49-68, 2001.
- [13] H.S.Lee and O.B.J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the Adolescent's Offensive Characte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16, No.1, pp.47-62, 2004.
- [14] Y.S.Lincoln and E.G.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1985.
- [15] K.R.Shin, M.O.Cho and J.H.Ya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13.

박 선 희(Sun-Hee Park)

[정회원]



- 2020년 8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 겸임교수
- 2016년 1월 ~ 현재 : (사)통합힐링복지협회 부회장
- 2019년 8월 ~ 2019년 12월 :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겸임교수
- 2012년 8월 ~ 2016년 1월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겸임교수
- 2018년 8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1월 ~ 2017년 2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차문화치료, 사물인터넷, 평생교육 융합프로그램